

##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개막식 축사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가 이곳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시오 우즈미 ITU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의 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이 이끌어 가는 지식정보혁명의 시대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구한 문화적 전통과 지적기반, 그리고 특유의 역동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 100대 IT 기업 가운데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5%를 넘어서 날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전자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IT 제조업의 경쟁력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보화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까지 지금의 초고속 통신망을 광대역 통합망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TV와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IT 허브 실현을 목표로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 방문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를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긴밀한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아시아 공동번영의 촉매제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그동안 이룩한 정보화 성과를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 정보통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2003년부터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IT 전문가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터넷 청년 봉사단'을 아시아 각국에 파견해서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ITU 텔레콤 아시아 총회'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미래를 주도하는

아시아'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참가국간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촉진  
함으로써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